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⑪ 미륵 세상을 꿈꾸며



▶한줄 요약
14세기 후반 혼란의 고려 사회를 살아가던 민중은 미륵불이 하생하여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고대했다. 이성계와 함께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그의 둘째 부인 강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금강산에 묻은 어느 부부의 특별한 염원

1932년 산불 저지선 공사가 진행 중이던 금강산 월출봉(月出峰)에서 한 석함이 우연히 발견되었다. 석함 안에는 금속과 백자 기물 등으로 구성된 사리장엄구가 모셔져 있었는데, 그 중 백자발 한 점의 안쪽에는 대명 홍무 24년(1391년, 공양왕 3년) 4월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미륵을 기다리며 금강산의 비로봉(毗盧峯)에 부처님 사리를 모신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함께 발원하여 봉우리에 사리장엄구를 모신 사람 중에는 후일 조선을 건국하는 문하시중(門下侍中) 이성계(李成桂, 1335~1408)와 그의 둘째 부인인 삼한국대부인 강씨(三韓國大夫人 姜氏, 1356~1396)도 있다.

이 사리장엄구는 발견 이듬해인 1933년 7월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정식 등록되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는 국립박물관에 인수되어 고려 말기 금속공예의 높은 수준과 불교 신앙을 보여 주는 귀중한 유물로 중시되었다. 이 점은 2017년에 이 사리장엄구가 보물로 지정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나라에서 정한 이 보물의 명칭이다. 발원문 중 스님을 제외하면 이성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열거된다는 점에서는 발원의 주체를 명확히 드러낸 적절한 명칭일 것이다. 그러나 함흥 출신의 무장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로 거듭나기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도왔던 삼한국대부인 강씨, 즉 실질적으로 조선의 첫 번째 국모였던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존재가 지워졌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명칭이기도 하다. 이 두 사람이 금강산에 함께 묻었던 비밀스러운 염원은 무엇이었을까.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고려 1390~1391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제공=e뮤지엄

사리장엄구에 새겨진 염원

일제강점기에 우연히 발견된 이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발굴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비로봉에 모셔져야 했을 사리장엄구가 왜 월출봉에서 발견되었는지도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간 발표된 여러 연구를 통해 조성과 봉안 당시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사리를 직접 모신 그릇은 모두 5중에 달하며, 여기에 지금은 전하지 않는 석함까지 포함하면 6중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바깥쪽 그릇으로는 백자 사발이 사용되었다. 백자 사발 안에는 유기완(鍮器垸)이 포개져 있었을 것이다. 이 유기완 안에는 은제도금 팔각당형 사리기(銀製鍍金八角堂形舍利器),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기(銀製鍍金喇嘛塔形舍利器)를 차례로 넣었고, 이와 함께 사리를 옮기는 데 사용했을 귀이개 모양의 은제이소(銀製耳搔)가 함께 들어 있었다.

팔각당형 사리기는 따로 제작한 연화형 대좌와 팔각형 은판, 팔각당형의 뚜껑을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몸통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한 불입상이 각 면마다 새겨져 있다. 여래의 상호는 넓적하고 귀가 크며, 양쪽 발을 벌리고 선 정면향의 모습이 독특하다.

라마탑형 사리기도 팔각당형 사리기와 유사하게 별도로 만든 연화형 대좌, 원통형 은판, 라마탑형 뚜껑을 결합하는 구조이다. '라마탑'은 티베트 불교미술에서 유래한 탑의 형식으로, 몽골족이 중국대륙을 지배했던 원대(元, 1271~1368)에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 기본적으로 수미좌, 탑신, 상륜, 탑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나온 탑신의 모습이 특징적이다.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게 됨에 따라 원 황실에서 숭앙했던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 불교미술의 양식이 고려에 수용된 결과이다. 탑신에는 4구의 불입상을 돌아가며 새겼다. 팔각당형 사리기에 새겨진 불입상과 마찬가지로 정면을 바라보며 양발을 벌리고 선 모습이다.



은제도금 팔각당형 사리기(분리한 모습), 고려 1390년, 전체 높이 19.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제공=e뮤지엄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기와 유리제 사리병(분리한 모습), 고려 1390년경, 전체 높이 15.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제공=e뮤지엄

라마탑형 사리기의 원통형 구조 중앙에는 가느다란 원통형 모양의 유리 사리병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무색투명한 석영유리를 주재료로 만들어진 이 병이 사리를 직접 모신 가장 안쪽 그릇에 해당한다. 유리 사리병은 금속 재질의 연화대좌로 안정감 있게 받치고, 금속 재질의 연꽃 모양 마개로 봉인하도록 고안되었다.

석함 안에는 이와 같은 5중의 사리장엄구 외에 대형 백자 4점이 함께 들어 있었다. 이 중 1점은 구연부에 테두리가 달린 완(垸) 형태의 향로이며, 다른 1점은 향목을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 사발이다. 그리고 나머지 2점의 백자는 아래보다 위가 넓은 주발이다. 이 두 점의 주발은 앞서 살펴본 명문이 있는 두 점의 백자에 각각 포개어 뚜껑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기물 중 사리장엄구의 가장 바깥쪽 그릇인 백자 사발의 안측과 굽, 향합으로 추정되는 백자 사발의 외면, 유기완의 구연부, 팔각당형 사리기 안의 팔각형 은판, 라마탑형 사리기 내부의 원통형 은판에는 조성 경위를 기록한 명문이 각각 남아 있다. 이 중 라마탑형 사리기 안 원통형 은판에 새겨진 '분충정난광복섭리좌명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수문하시중 이성계, 삼한국대부인 강씨, 물기씨(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守門下侍中 李成桂 三韓國大夫人 康氏 勿其氏)'라는 명문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사리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새겨진 명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이는 호칭은 이성계가 1389년에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공으로 받은 것이다. 이 위호를 통해 라마탑형 사리기가 1389년 이후에 제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왕을 능가하는 권력자 이성계의 위상도 엿볼 수 있다. 이 명문에서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점은 이성계 다음으로 그의 첫째 부인인 한씨(韓氏, 1337~1391)가 아니라 둘째 부인인 강씨가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당시 한씨가 와병 중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처럼 중요한 불사에 그녀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라마탑형 사리기 외에 뒤에서 살펴볼 다른 기물들에서도 한씨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은 이 불사에서 강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물기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가 없어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성계 부부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새 세상이 열리는 그날

사리장엄구의 가장 바깥쪽 그릇인 백자 사발의 안쪽에는 '금강산 비로봉 사리안유기(金剛山毘盧峯舍利安遊記)'라는 장문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1391년 5월에 이성계와 부인 강씨, 승려 월암(月菴), 몇몇 신분이 높은 여성들이 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비로봉에 사리를 모시고 미륵의 하생을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이 여성들 중에는 나라에서 받은 칭호와 스승에게 받은 법명을 이용해 자기를 표명한 낙랑군부인 묘선(樂浪郡夫人 妙善/禪)과 강양군부인 이씨 묘청(江陽郡夫人 李氏 妙情)처럼 불자로서 뚜렷한 자의식을 가진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

14세기 후반 혼란의 고려 사회를 살아가던 민중은 미륵불이 하생하여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고대했다. 전장에서 왜구와 홍건적을 토벌하며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 나간 함흥 출신의 무장도, 그에게 운명을 건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의 강씨 역시 민중과 함께 새 세상을 꿈꾸었다. 이 사리장엄구를 봉안하고 일 년 후에 마침내 도래한 새 세상에서 강씨는 이성계의 옆에서 조선의 첫 번째 국모 자리에 올랐다. 라마탑형 사리기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처럼 말이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